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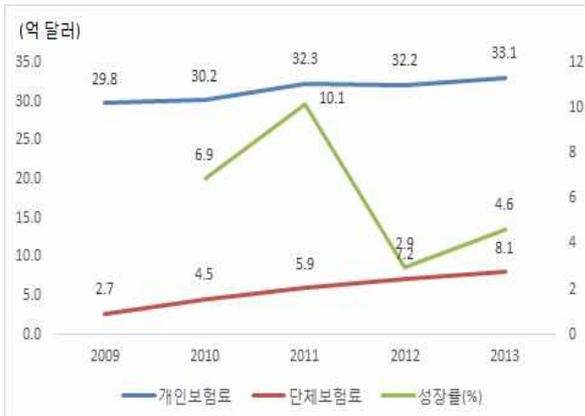
미국 CI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김진억 수석담당역

■ 미국의 치명적 질병 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 이하 CI보험¹⁾)은 보충적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시장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꾸준한 성장 추세²⁾를 보이고 있음.

- 1983년 남아프리카에서 첫 출시된 CI보험은 1980년대와 1990년 초반에 걸쳐 영국, 캐나다, 호주 및 아일랜드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었으나 미국에서는 10여 년이 지나 비교적 늦게 도입됨.
- 미국의 2013년 CI보험 가입자는 1,78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계약 건수도 천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9년에 비해 각각 21.7%, 18.5% 증가한 것임.
 - 2013년 경과보험료는 41.2억 달러로 2009년보다 26.8%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체 CI보험은 8.1억 달러로 2009년 2.7억 달러에 비해 202.9% 증가함.

〈그림 1〉 미국 CI보험 경과보험료 추이



〈그림 2〉 미국 CI보험 보유계약건수 및 가입자수 추이



1) 미국에서 판매되는 CI보험은 계약상 정해진 특정 상태를 진단받았을 경우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초기에는 신부전, 장기이식뿐만 아니라 암, 뇌졸중, 심장마비 등 3가지 중증질환을 보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마비, 실명,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병, 난청, 파킨슨병 등의 경우 100%, 혈관 성형술 및 우회 수술의 경우 정해진 비율만큼 보장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2) A.M. Best(2015. 1), "Critical Illness Insurance Gains Momentum As Marketplace Evolves".

■ 미국의 CI보험은 기업들이 건강보험과 함께 CI보험을 복지수단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개인들도 기존 건강보험을 보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종업원복지 수단으로 단체보험시장이 커지고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CI보험이 자리매김함에 따라 단체 CI보험 성장이 두드러짐.
 - 또한 보험회사들도 건강보험, 의료보험 및 사망보험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CI보험을 활용하면서 판매가 증가함.
- CI보험의 주요 보장대상인 Big 3(암, 심장마비, 뇌졸중)의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낮고 개인 재무상황도 좋지 않아 개인들도 보충적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
 -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개인 파산의 약 60%가 의료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중 75%는 발병당시에 사적 건강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건강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 또한 희귀질병이나 중증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로 인해 저축, 퇴직소득 등이 쉽게 고갈될 수 있으나 최근 실업률 증가와 함께 미국의 저축률도 5%내외로 낮아져 개인의 재무적 위험을 높이고 있음.

■ 진단의학의 발달과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험산업은 CI보험 도입 시부터 면밀한 상품설계와 위험관리로 손해율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건강문제 인식 제고, 진단의학 발달, 건강검진 이용 증가와 웰빙산업 발달 등으로 예방적 치료, 조기발견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CI보험 도입이 늦었던 미국은 보수적 상품설계와 위험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양호한 손해율을 보임.
 - 초기 CI보험을 먼저 도입했던 영국과 캐나다와 같은 경우 마케팅과 금융수단으로 CI보험판매에 집중한 반면 미국의 경우 보수적 상품설계에 집중하였음.
 - 또한 영국, 캐나다 등과 달리 미국의 CI보험의 보험료는 평준보험료가 아니며,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고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부적절한 가격책정에 따른 리스크가 적고, 고지의무, 면책조항, 면책기간 등의 위험관리 장치를 마련함.
 - 최근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CI보험의 의료손해율(Medical Loss Ratio)은 2011년 56.2%까지 하락한 후 2013년에는 60.7%로 상승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CI보험은 과학 발전으로 과거 진단되지 않았던 암 등 치명적 질병에 대한 진단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책이 필요함.

- 과학 발전으로 저렴한 진단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건강검진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 전립

- 선암,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 사례에서 같이 진단되지 않던 암 등의 진단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들은 CI보험 위험률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조기 발견 또는 중증도가 낮은 단계의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CI보험 등을 개발하여 손해율을 관리하거나 또는 역으로 이러한 경우를 보장하는 CI보험을 개발하는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적 차별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A.M. Best 등)